

'4·19 혁명 발상지' 광주고서 64주년 기념식

발상지서 첫 행사...4·19정신 선포 '내일의 봄으로 피어나리' 주제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고등학교에서 4·19혁명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가 있었던 3곳(서울, 부산, 광주) 중 하나인 광주에서는 해마다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특히 4·19혁명에 참여한 학교에서 순회 개최하는 강기정 시장의 제안으로, 올해 4·19혁명 발상지인 광주고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하성일 광주지방보훈청장, 4·19민주혁명회 고종재 지부장, 4·19희생자유족회 김정순 지부장, 시의원, 광주고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으로 희생된 이들의 정신이 부활하기를 바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 '산의 언덕



지난 19일 광주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에'에서 인용한 '내일의 봄으로 피어나리'를 주제로 열렸다.

1960년 당시 시위의 신호로 타종을 했던 것과 같이 22번의 종소리를 시작으로, 광주 스트리트 댄스팀 '리바운드'가 어둠을 뚫고 봄이 와 다같이 만세를 부르겠다는 의미를 담은 '봄이 온다면' 공연을 펼쳤다.

이어 4·19혁명의 주역인 고종재 4·19민주혁명회 지부장과 김준서·김재환·장성

재·진주환 등 광주고등학교 학생 4명이 무대에 함께 올라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4·19혁명 정신계승 결의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내 나라 내 겨레'를 부르며 피맺힌 투쟁과 찬란한 문화의 역사를 이어받아 순결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 4·19혁명 정신계승 유공자로 선정된 김상환·박순희·박은영·이교수·최운재 씨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 광주시립합창단의 '내일로' 합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광주공원 4·19혁명 기념탑에서는 4·19혁명 희생자를 위한 참배행사가 열렸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4·19혁명의 승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불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다"며 "64년 전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열사들의 힘이 당당하고 낙낙한 미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 화재취약시설 요양원 점검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마라나타요양원 등 3개소에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요양원과 같은 노유자시설은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나 재난 대응활동이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부소방서는 서구, 전기·가스·건축 전문위원회와 합동으로 요양원 일반현황을 정취하고 △화재 예방

안전지도 △취약시설 및 피난약자 동선 점검 △소방시설 관리 요령 안내 △전기·가스·건축 세부 점검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도했다.

전계철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시설인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시설 관리 등 화재 예방에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인이 위험요소를 잘 살피고 평소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비 기자



광주전남콘크리트협동조합, 이전 개소식

광주전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광주전남콘크리트조합은 1976년 설립된 수로관 및 호안블록 등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47개사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시멘트 공동구매 및 조달시장 공동판매 등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조합은 노후화된 기존 풍향동 사무실에서 첨단2지구 허드슨1041 지식산업센터(1301호)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했다.

류승원 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 콘크리트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소영 기자



광주시, 보육서비스 지원정책 현장점검

광주시가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비담임교사·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정책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사진)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구 아이월드 어린이집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월 출생·양육 주제별로 학부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는 현장 중심의 안심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비담임교사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월드 어린이집을 찾았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병가·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어린이집 비담임교사를 대폭 확대 지원했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며 담임교사가 없을 때 대체교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올해 비담임교사 수를 지난해 33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렸다.

노병하 기자



광주광산경찰,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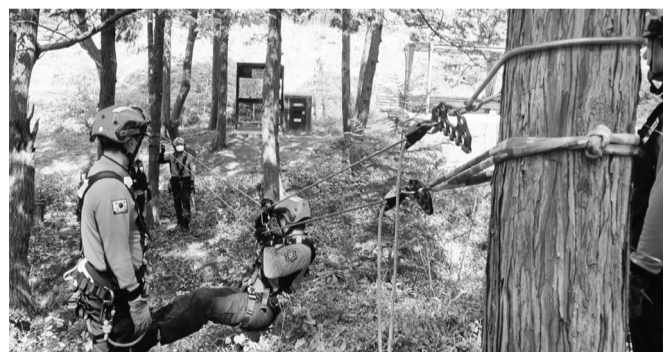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8일 학교전담경찰관과 외국인자살방범대 30명 등과 함께 월곡동 일대에서 '사이버도박·마약 등 위기청소년 비행행위 예방을 위한 야간합동 순찰'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이번 순찰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마약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월곡시장에서 시작해 야간시간대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공원(다모아·햇살·기쁨공원)과 무인점포 등 밀집지역 위주로 가시적 순찰과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타국어라 생소한 112신고요령 및 사이버도박·마약 범죄피해 예방법 등을 전파했다. 햇살어린이공원 전자 조명 고장과 어두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비행 장소가 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개선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18~19일 남구 분적산 일대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 봄철 등산객은 45만명·18.7%였으며 광주 산악사고 구조건수 273건 중 봄철 48건으로 17.6%를 차지했다.

유형별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실족(93건), 질환(50건), 탈진(45건), 조난(25건), 외 기타(60건)로 2022년을 제외하고 등산객과 산악사고 구조건수가 증가 추세다.

이번 산악사고 특별구조훈련은 구조대장 등 119구조대원 16명이 참여했으며 △산악구조장비 제원 및 특성 교육 △산악구조장비를 활용한 인명구조기법 숙달 △산악구조 상황별 응급처치법 숙달 등으로 진행됐다.

정성아 기자

에이티즈, 이제 '절호의 시간'... 6개월 만의 새 앨범

대세 K팝 그룹 '에이티즈(ATEEZ·사진)'가 6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낸다.

21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티즈는 오는 5월31일 오후 1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GOLDEN HOUR : Part.1)'을 발매한다.

에이티즈는 현재 K팝을 대표하는 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2월 발매한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월 (THE WORLD EP FIN : WILL)'을 통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에 6주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100에서 아쉽게 1위를 놓치며 2위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에이티즈는 'K팝 보이 그룹 최초'로 미국 최대 규모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라이브



실력으로 재조명됐다. 동시에 '그래미 뮤지엄'에서 팝업 전시를 열고 있다.

에이티즈 지난 12·19일(현지시간) 코첼라 무대에서 이번 앨범에 대한 예고를 했다. 관련 이미지를 경비행기를 통해 코첼라 공연장 상공에 띄웠고, 팀의 캡틴(리더) 홍중이 코첼라 무대에서 펼쳤던 부채의 '골든 아워 (Golden Hour)' 역시 새 앨범에 대한 스포일러였다.

KQ엔터는 "에이티즈는 22일부터 새 앨범이 발매되는 5월31일 당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다채로운 티징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컴백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시스

테일러 스유프트 정규 11집, 최초 일일 3억 스트리밍

세계 대중음악 산업을 들썩이는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유프트(Taylor Swift)가 정규 11집 '더 토처드 포이즈 디파트먼트(The Tortured Poets Department·TTPD)'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신기록을 거듭 세우고 있다.(사진)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중문화 매체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유프트의 '더 토처드 포이즈 디파트먼트'는 발매 첫날 스포티파이에서 예상했던 2억 스트리밍을 넘어 실제 3억 이상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스포티파이는 애초 '더 토처드 포이즈 디파트먼트' 발매 당일인 19일 하루에 2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첫 번째 앨범이 됐다고 발표했다는데 이날 이른 아침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하며 첫날 스트리밍이 실제로 일일 3억을 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전했다.

'더 토처드 포이즈 디파트먼트' 발매



당일 스트리밍 수는 3억1400만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유프트는 스포티파이에서 일일 하루 최다 스트리밍 앨범 1~3위를 휩쓸게 됐다. 2위는 정규 10집 '미드나잇스 (Midnights) (186M)', 3위는 정규 5집 '1989 테일러스 버전 (Taylor's Version)' (176M)이다. 특히 이번 최신 앨범으로 2억대 스트리밍을 건너 뛰어 3억대 스트리밍으로 바로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뉴시스